

증심사지구 환경복원 사업 '난항'

주민·점포주 "보상가 비해 분양가 높다" 91곳 중 34곳 철거 거부

'뺏다방' 분양권 사들여 2~3배 폭리

8월 완공 불구 '복원' 시작조차 못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완료 시점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나 보상이 책정을 둘러싼 일부 원주민과 점포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신규 조성 상가에 입주하지 못한 원주민들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여 일반인에게 2~3배를 받고 판매하는 속칭 '뺏다방'들이 사업지구내에 성업중인 반면, 철거가 지연되면서 정작 중요한 생태복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9일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가옥과 점포 91곳 중 57곳이 철거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며, 이주에 반대하며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가옥과 점포는 모두 34곳에 이른다.

도시공사 측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들 원주민들을 이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사 완료일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주단지과 상가단지의 분양가가 m²당 각각 32만6천원(일반인 85~87만 원), 34만1천원에 달해 330m² 정도의 한 필지 부지매입에만 1억1000여 만원이 필요한 반면, 보상가는 평균적으로 가옥의 경우 4천 여 만 원, 상가는 6천 여 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부지 매입 외에 건물 건축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하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원주

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상가단지 내 40필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은 분양권을 외지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넘기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분양가에 1억 여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인들에게 2억5천만~4억 원에 되팔고 있는 실정이다.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원주민 나모(55)씨는 "15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지금 책정된 보상가로만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다"며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원주민이나 상가의 생계 타격을 빼앗고 분양권 중개업체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주민 이주'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상가단지에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가설 사무실까지 개설해 성업중인 반면, 원주민은 물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이주 단지는 공사가 완료된 지 1년이 넘도록 전체 68필지 중 27필지가 미분양된 채 남겨져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주민의 상가 분양권 매수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조속한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환경복원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8년간 모두 742억원을 들여 무등산 자연공원내



오는 8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상이 책정을 둘러싼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상가 및 가옥의 철거가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증심사 입구의 상가단지(사진 위)와 단지내에 성업중인 '뺏다방'의 가설 사무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후불량 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생태를 자연스럽다 군락지로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1단계인 이주단지 공사는 지난 2008년 2월 완공됐으며, 2단계 상가·주차장·회차지 조성공사

는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3단계인 상가 및 가옥 철거 뒤 자연환경 복원 공사는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유족회 등 3단체

29주년 행사준비 참여

슬로건 '민중의 뜻대로 다시 5월이다' 선정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차질이 우려됐던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별관 보존 논쟁으로 그동안 기념행사 준비에 미온적이었던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최근 추모제, 부활제, 위헌대회, 추모리본달기 등을 담은 행사계획서를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29주년 행사위)에 제출했다. 5월 단체인 행사위에 제출했다. 5월 단체들은 공동행사위원장 11명 가운데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위원장도 조만간 추대할 계획이다.

29주년 행사위도 9일 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을 선정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섰다. 29주년 행사위는 최근 5월 관련 단체·교육·여성·학생·진보연대·농민·문화·환경·노동·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사위원회를 열어 '민중의 뜻대로 다시 5월이다'를 슬로건으로 채택했으며, 당초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9주년 5·18 기념행사 출범식도 오는 20일 열 예정이다.

29주년 행사위 관계자는 "이번 슬로건에는 5월 정신을 계승,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5·18 관련 단체들이 우선 기념행사를 잘 치르자는 데 의견을 함께 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칭 '반쪽자리 행사'로 전략할 위기를 맞았던 29주년 5·18 기념행사는 20일 출범식과 함께 홍보물 제작, 행사기획 실무준비팀 구성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조만간 열린 29주년 행사위원장단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수만 유족회장은 "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인해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념행사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원침



소쇄원 양산보 종손 솜저

9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5아파트 양재영(47)씨의 집에서 양씨가 숨겨있는 것을 딸(1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선 중종 때 담양군 남면에 소쇄원을 세운 양산보의 15대 종손인 양씨는 30여년간 소쇄원을 지켜왔다. 경찰은 '담양 수출 후 약을 복용해 왔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양씨가 병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상다발

○-광주북부경찰은 9일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의 집에 있던 20kg 짜리 가연성 액화석유가스(LPG) 밸브를 켜 뒤 폭발시켰다고 혐박한 K(49)씨에 대해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동거녀 P(41)씨의 집에서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스를 틀고와 밸브를 켜 뒤 가스를 방류하려던 혐박한 혐의.

○-K씨는 또 P씨가 이웃에 사는 L(여·51)씨의 집으로 몸을 피하자 뒤 쫓아가 L씨의 집에 가스를 방류하는 등 허버탕 솜저.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박연수 진도군수 구속 영장

광주지검, 인사·공사 비리 수천만원 수수 혐의

박연수 진도군수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관급 공사 및 직원인사 정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로 박연수(61) 진도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군수는 2006년 8월 진도군 진도읍 군수 관사에서 '홍주 체험관' 등 진도군이 발주한 전시설 설치 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문도(52·

구속)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박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가 무산되자 채무관계 형식을 빌려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박 군수는 또 2007년 12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하위직 특별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전남 검찰조사에서 "문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을 뿐, 뇌물은 아니다. 인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하지만 박 군수가 1차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음주 초께 첫 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개 경찰서 16개 팀 127명

광주경찰이 성매매 및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집안단속'도 강화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청사 빛고을 홀에서 여경기동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경찰기동대, 여성청소년계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SGS 단속반'(Sexual crime & Gambling Sweeping team·성매매 및 사행성 게임장 소탕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착수했다. 단속반 구성은 사회지도층의 성 집

광주지역 보장구 업체 19곳을 적발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의수족의 가격이 기능과 재질에 따라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에게 고가의 의수족 등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한 뒤, 저가의 보장구를 제공하고 그 차액을 가로챈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보장구 업체 19곳 고발

건보공단 광주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9일 장애인에게 고가의 의수족 등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한 뒤, 저가의 보장구를 제공하고 그 차액을 가로챈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경찰 'SGS 단속반' 발대

<성매매·사행성 게임장 소탕팀>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1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골목길에 한정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만 추천합니다.

| 소재지 | 대지/건물 | 면적 | 최저가 | 비고 |
|-----|-------------|------|-------|--------|
| 순천동 | 대1130,건1989 | 1119 | 82억 | 신속양양원 |
| 농성동 | 대701,건1160 | 639 | 35억 | 역시상 |
| 소촌동 | 대802,건1387 | 849 | 38억9천 | 7층 팔방미 |
| 노곡동 | 대683,건2033 | 597 | 4억 | 주유소근처 |
| 지곡동 | 대151,건2913 | 59 | 2억2천 | 2층의왕역 |
| 오지동 | 대131,건169 | 49 | 2억9천 | 2층 공방 |
| 신안동 | 대88,건285 | 89 | 4억4천 | 4층 빌딩 |
| 송정동 | 대127,건175 | 59 | 3억9천 | 원룸4세대 |
| 고촌동 | 대3128,건1779 | 319 | 17억 | 유기소 |
| 해동 | 대82,건147 | 49 | 3억 | 원룸30세대 |
| 오차동 | 대281,건291 | 79 | 2억6천 | 2층 공방 |
| 농성동 | 대187,건688 | 289 | 15억9천 | 7층 빌딩 |
| 문양동 | 대238,건255 | 159 | 8억 | 빌딩 |

| 소재지 | 대지/건물 | 면적 | 최저가 | 비고 |
|-----|------------|-----|-----|----|
| 공평동 | 대180,건1000 | 180 | 1억 | 1층 |
| 신안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 송정동 | 대120,건1000 | 120 | 1억 | 1층 |

이젠 전기요금 걱정 끝!!

<그린100만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정부무상보조사업(100가구 선착순)>

■ 상업용 발전소 용도인 고효율 단결정 모듈 설치
- 3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평균 월당 약3~400kWh(추정)의 전력이 생산가능

| 태양광발전 설치시 예상되는 월 전기요금 비교표(추정) | 기존주택요금(여름계절4kWh) | 설치시 청구요금 | 절감요금 | 비고 |
|-------------------------------|-------------------|-----------|----------|-----------------------------|
| | 10만원(약 480kWh) 일때 | 약 4,200원 | w 95,800 | 월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설치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
| | 15만원(약 540kWh) 일때 | 약 12,400원 | w137,600 | |
| | 20만원(약 610kWh) 일때 | 약 23,000원 | w177,000 | |

* 전력 생산량과 설치시 청구 요금, 절감 요금은 추정치로서 일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량이 거꾸로 돌아요”

■ 설치자의 자격요건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용' 이고, 한전과의 계약 종별이 '주택용' 인 건물의 소유자
○ 신청자 구비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한전전기요금1년사용내역 - 표준계약서(인감서1도장날인)

■ 태양광주택 설치시 무상보조금 및 자부담
○ 총사업비 중 - 국가 무상 보조 60%, 자부담40%
○ 주의사항 -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09년도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과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일괄시공(상업용 발전사업 절호의 찬스!!)
■ 영업딜러 모집

2008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우수전문기업 **송지전력(주)** 광주 사무소 062)605-9796 여수 사무소 010-9605-0091